

지역주택조합 추진 붐물... “판단 신중해야”

지난해 첫 조합원 모집신고 이어 9개 단지로 증가 입주까지 과정 까다롭고 추가분담금 발생 요인도

제주 곳곳에서 지난해부터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조합원 모집신고에 이어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제주 분양가가 전에 없이 치솟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동·호수 지정과 분양가격은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확정되고, 추진 과정에서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도 있어 조합원 가입에 앞서 사업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도내 처음으로 애월지역에서 조합원 모집이 신고된 후 현재까지 9개 단

지에서 1632세대의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 신고됐다. 제주시 화북, 아라, 삼화, 애월, 도련, 외도 지역이고, 서귀포시에서는 토평, 강정, 표선 지역이다. 이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6개 지역이다.

주택법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제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이거나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 세대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조합을 결성해 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권을 확보하는 제도다.

사업을 시행하려면 조합원 모집신고 후 조합설립 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년 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착공·분양승인, 입주와 사비비 정산, 조합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토지 소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후 조합 설립때 토지 사용권(80% 이상)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때 9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홍보사무실에서는 시중 분양가보다 싸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지만 토지 매입이나 공사 시행 과정에서 추가분담금 발생 요인이 적잖다. 주택 동·호수 지정이나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때 확정되는 것으로 조합원 모집때 홍보하는 내용은 확정사항이 아닌 계획(안)에 불과하다. 한번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탈퇴도 어렵다.

이처럼 까다로운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제주도는 주민피해를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23일 서귀포시와 함께 서귀포시 소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 내용은 가입신청서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명시 여부와 일반 분양이나 사업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여부, 조합원 자격에 대한 설명과 가입 자격확인 여부, 주택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 여부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른지역에서도 지역주택조합이 많이 추진됐지만 과정이 까다로워 실제 입주까지 이어진 경우는 제한적”이라며 “추진과정에서 분쟁 발생이나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이 있는만큼 조합원 가입·투자에 앞서 사업계획과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지고, 가입 후에도 조합 활동 상황을 잘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농어촌민박 인증제’ 문턱 낮춘다

도 운영 지침 보완... 신청기간 연 1회→연중 수시 4월 현재 3973곳 영업... 안전인증 신청 4.1% 그쳐

제주자치도가 도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지침으로 운영지침을 일부 완화해 영항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침 보완에 따른 행정예고를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보완 내용을 보면 신청대상이 '민박사업 운영자'에서 '민박사업 6개월 이상 운영자'로 수정한다. 또 신청기간이 '연 1회'에서 '연중 수시(월 단위 일괄 지정)'로 변경되며, 지정요건도 '지정항목 모두 충족'에서 '평가점수 85점 이상'으로 달라진다.

홍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등이 보완됐다.

이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지정업소 수를 늘리고 농어촌민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농어촌민박은 4월 말 기준 3973곳(객실수 1만 1941호)이 등록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안전인증제 신청건수는 총 164곳(4.1%)에 불과하며, 실제 지정된 곳도 39곳(0.9%)에 그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안전인증제 신청 민박 수가 저조한데다 시설 투자에 따른 부담으로 기피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 정도 충족되면 안전인증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6월 10일까지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기관·단체 및 도민의 찬반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서 제출은 우편(제주시 문연로 6)이나 전자우편(kdg7167@korea.kr) 등으로 가능하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일교차 10℃ 이상 기상청 “건강관리 유의할”

당분간 제주의 일교차가 10℃ 이상 날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3-24일 제주 도남쪽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며 “당분간 낮에는 일사에 의해 기온이 오르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10℃ 이상 나겠다”고 20일 예보했다.

23일 아침 기온은 15-19℃이며, 낮 기온은 23-28℃로 예상되고 있다. 또 24일 역시 아침 기온 15-19℃, 낮 기온 23-28℃로 큰 일교차를 보이겠다.

송은범기자



마을 수확 일손 달리는데... 힘겨운 노부부 본격적인 마을 수확철을 맞아 22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한 마을밭에서 노부부가 힘겹게 마을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동문재래야시장 경쟁률 10대 1

제주시 운영자 모집 결과

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동문재래야시장 야시장 7개소 운영자를 공개모집한 결과 총 70명이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시는 도내 음식조리 관련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신청자 70명을 대상으로 5월중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총 21명을 선정하는데 이어 6월 중에는 2차 품평회 심사를 실시해 최종 7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야시장 운영자 충원과 더불어 동문재래야시장 야시장이 야간 원도심 활성화를 비롯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석기자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 평가

제주시 191개 업체 대상

제주시는 지역 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체 191개소를 대상으로 내달 30일까지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위생관리등급평가는 제조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출입·검사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 및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된다. 평가 내용은 기본조사 45항목, 기본관리 평가 47항목, 우수관리 평가 28항목 등 120항목에 대해 평가배점 200점을 기준으로 151-200점은 자율관리업소, 20-150점은 일반관리업소, 89점 이하는 중점관리업소로 분류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통해 지역 내 식품제조업체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청정 제주는 옛말... 이젠 ‘오존 주의보’

어제 농도 0.125PPM ‘나쁨수준’... 2015년 대기경보제 도입후 첫 발령

22일 제주지역에 오존(O3) 주의보가 발령됐다. 5시간만에 해제됐다. 이번 발령은 2015년 대기경보제 도입된 이후 사상 처음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제주권역에 오존 주의보를 발령하고 오후 5

시에 해제했다. 발령 농도는 0.125PPM으로 ‘나쁨(0.091~0.150PPM)’ 수준이다. 주의보는 오존농도 0.120PPM 이상일 경우, 경보는 0.240PPM 이상일 경우 각각 발령한다.

해제 농도는 0.111PPM으로 여전히 나쁨 수준이지만 ‘주의보’ 경계는 벗

어났다. 제주도는 발령 당시 각 기관에 고농도 오존 상황과 시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오존은 입자상 물질인 미세먼지·초미세먼지와 달리 가스상 물질이므로 마스크로도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실외활동

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원 관계자는 “다른 지역 오존은 고온이나 일사량이 심할때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광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이번 제주지역 오존주의보는 다른 지역과 달리 바람에 의해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예전에도 주의보 수준인 0.120PPM 근처까지 올라갔던 적은 있다”면서 “실제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성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

여성과 남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사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